

## 회 의 록

회의명		2024년도 제8차 대학평의위원회				
일 시		2024. 8. 29.(목) 11:00 ~ 12:00				
장 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안건		- [제8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회의결과		- 심의·의결 보류				
참 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참석자 (위임장 포함)	21명				
	불참자	1명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장 10명 포함 21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4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8호</div> <div>○ 의장(○○○): 제8호 안건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심의하겠습니다.</div> <div>○ 교무과장(○○○): 회의자료에 따라, 제8호 안건 제안 설명.</div> <div>○ 의원(○○○): 총장 공약사항이 이전 조직을 통합하고 개편해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대부분 신설하는 것임. 그렇다면 공간과 인력이 더 필요한지?</div> <div>○ 교무과장(○○○): 기구는 늘어난 것이 맞고, 인력 부분은 총장 지시로 총무과에서 현재 부서에 인력이 적절한 업무에 맞는지 실질적인 진단을 해나가는 중임.</div> <div>○ 기획평가과장(○○○): 지역협력본부가 없어지면서 그 공간이 남게 되고, 기획처 기능이 조금 강화된 것 외에는 크게 공간 조정 부분은 없었음.</div>						

- 의원(○○○): 기획재정과만 봐도, 링크사업, 라이즈 사업만 갖고 오는데, 결국 인력을 또 투입해야 함.
- 기획1부처장(○○○): 라이즈 사업의 경우는 수주만 함. 운영은 안함
- 기획평가과장(○○○): 타대학 조사 결과, 기획처를 대부분 기획재정과 평가 관련 2개의 과로 운영하고 있었음. 한 과로 운영하면서, 세계 대학평가나 캠퍼스 광역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개의 과로 조직을 하게 되었음. 무엇보다 신동, 내포, 세종캠퍼스가 광역화되면서 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을 고려해서 조정했음.
- 의원(○○○): 장기적인 방향에서 재정 효율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방향성이 맞지 않음. 부총장제가 정상철 전 총장 때부터 시작됐었고, 연구 산학부총장과 연구처를 만들면서 갈등이 심했음. 대외협력부총장을 또 만드는 것이 방향성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음. 이런 사안이라면 미리 여러 번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9월 1일자라는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회의를 하니, 교수 위원 11명 중에 3명만 참석했음. 이런 와중에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대외협력부총장을 만드니까 대외협력본부를 만들고, 그 안에 ESG센터를 또 만드는 것임. 왜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인지? 조직개편 같은 중요한 사안을 왜 구성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직능단체 대표들하고 협의하지 않는지? 임원 동의 절차에서 오늘 심의를 하는데 어제까지 공유해달라고 했음.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간이 걸려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 회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함.
- 의장(○○○): 총장이 방향을 설정하고 가겠다는 인사에 대한 것인데,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이고, 심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더 중요한 것은 인선에 대한 부분임. 조직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성과에 대한 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조직 신설에 대한 의미가 없음. 대외협력부총장의 대상을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임.
- 의원(○○○): 학칙개정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조직개편임. 조직개편 전에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창의융합대학과 부총장이 신설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를 질문하고자 함

- 교무과장(○○○):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관장이 공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음. 두 번째로, 조직진단의 경우 시간이 걸리기에 진단 없이 새로운 조직을 꾸려가기도 함. 정부 조직개편도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진단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 없이 정책 방향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기획평가과장(○○○): 라이즈 등 지자체에 대한 대응, 해외 유학생 유치라는 대외적인 부분, 재정 지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총장이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일부 하였음.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추가 논의 해서 또 다른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임. 예산 부분은 창의융합대학, 부총장 신설에 일부 비용이 발생 하는 부분은 있으나, 예산 추정치가 아직 나오지 않아, 회의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교무처장(○○○):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 신경쓰도록 하겠음. 위원들이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의원(○○○): 조직개편은 대외협력부총장 신설이 핵심임. 지역본부를 대외협력 본부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 ESG 센터가 되고, 기획처에서 대외 협력실이 떨어져 나감. 기획처에서는 하나를 더 만들어서 기획계량 평가계 명칭만 가지고 나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인 조직임. 조직개편에 좀 더 신중할 수는 없는지? 여기서 갑자기 결론을 내야 하는지?
- 교무처장(○○○): 지역협력본부에 사회공헌센터가 원래 있었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ESG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임. 또한 대외협력실의 주된 업무가 외부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발전기금재단과 관련해서 기금을 모으는 상황이 있어서 대외협력실이 대외협력본부 쪽으로 오는 내용임. 세 번째로 국제언어교육원이 국제교류본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제교류본부가 비자 문제 등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서포팅을 해왔고, 학생들의 비자 문제 등은 국제언어 교육원에서 처리하기 힘들.
- 의원(○○○): 우리 대학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진단을 해야 함. 지금 조직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함. 조직을 만들면 직원들의 권한 범위가 늘어나고, 새로운 직원을 충원해야 하고,

검지도 해야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김. 조직이 생기면 부서 운영비도 줘야함.

- 교무처장(○○○): 총장이 학교를 위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의원(○○○): 연구산학과 대외협력을 나누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지?
- 교무처장(○○○): 대외협력은 지자체, 정부, 기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연구 산학은 연구소, R&D와 관련된 기업 등에 관련되는 부문임. ESG는 사회 전반과 관련된 것임.
- 의장(○○○): 조직개편 등에 총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교수회, 직원 협의회, 조교협의회, 학생회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모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이 방법임. 조직 변경을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음. 총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이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자 함. 심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함. 9월 1일자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들어보고, 수용해야 함. 추석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개최 할 것을 제안함.
- 의원(○○○): 학칙개정을 할 때 조직개편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을 듯함. 9월 1일자 계획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함.
- 의장(○○○):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필요함. 추석 이전에 안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의결을 하도록 하겠음.
- 교무과장(○○○): 성과목표를 제시할 때 정량이어야 하는지?
- 의장(○○○): 정성이든, 정량이든 조직을 변경하면 대외협력 부총장이 만들어 지고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뭔지, 조직을 변경하면 어떤 절차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더라는 부분 설명을 요구 하는 것임. 자료에는 조직을 변경하겠더라는 사실 자체밖에 없음.
- 의원(○○○): 어떤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왜 바뀌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로드맵을 포함해서 예산 효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 더 필요함.

- 의원(○○○): 9월1일자로 조직 개편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 기획평가과장(○○○): 총장 취임 후 몇 달이 지나고, 글로컬 준비 등으로 조직 개편이 지연됐음. 이번 조직개편은 총장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들임. 타 부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개편안을 만들었음.
- 의장(○○○):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언급하고자 함. 대학의 중요한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글로컬 사업, 통합 문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의 부담이 있었음. 그러다 보니 총장, 대학본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고 이해해주는 측면이 있었음. 지금 학교의 상황 자체가 매우 위중한 상태임. 대학평의회 규정 제5조를 보면 대학평의회 기능이 있음. 대학평의회 기능 중에 대학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기능이 있음. 또한, 운영상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부의할 수 있음.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대학의 중요한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평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구성단위에 소속된 평의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를 열 것임.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면 회의를 열 것임. 이번 안건은 심의 기간 자체가 짧았기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준비를 요청함.

■ 폐회